

JTBC '미스티' 종영 2회 앞두고 '장안의 화제'

# 캐스팅·전개·연출까지 시청자 마음 사로잡다



지진희(왼쪽)·김남주

김남주·지진희, 완벽 연기 몰입감 ... '김남주 신드롬' 등장

시청률 8% 돌파 ... 탄탄한 스토리에 결말 예측 어려워

6년 만에 돌아온 김남주는 완벽 그 이상이었  
고, 신인 작가가 쓴 대본은 탄탄한 구성으로 용  
두사미를 피해갔다.

JTBC 금토극 '미스티'가 살인범에 대한 관심  
을 끌고 가는 데 성공하며 종영까지 2회  
를 남겨두고 있다.

대개의 드라마는 이쯤되면 범인이 누구인지  
가 시청자에게는 밝혀지지만, '미스티'는 여  
전히 미궁 속이다. 시청자는 범인을 놓고 갑론을  
박을 펼치고 있고, 드라마는 이를 동력삼아 지  
난 17일 시청률 8%를 넘어섰다.

◇ 강은경 작가의 '글라인'이 배출한 신인 작  
가 '사고'치다

'미스티'는 신인 작가가 썼다. 단막극을 쓴  
경험도 없는 신인 작가 제인(본명 김제인)이 16  
부작 미니시리즈로 데뷔했다. 그 자체가 이례  
적인 일인데, '미스티'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  
며 방송가에 파란을 일으켰다. 작가는 첫 작품  
임에도 흔들림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놉시스  
대로 이야기를 밀어붙였고, 지난달 초 일찌감  
치 탈고했다.

제인 작가의 뒤에는 베테랑 강은경 작가가 자  
리하고 있다. '제빵왕 김탁구' '가족끼리 왜이  
래' '구가의 서' '남만닥터 김사부' 등 술한 히트  
작을 낸 강 작가는 후배 작가 양성을 위해 2015  
년 '글라인'(line)이라는 창작 집단을 오픈했다.  
본인의 작품을 쓰기도 바쁜 현실에서 강 작가는  
이 글라인을 통해 후배 작가의 대본을 지도, 감

수했고 그 사이 '육체남정기'와 '변혁의 사랑'  
을 배출했다. '미스티'는 글라인 소속 작가의 세번  
째 작품으로, 역시 강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다.

신인 작가의 대본에 호화 캐스팅이 붙고, 드  
라마의 편성이 잡힌 데는 강은경이라는 든든한  
이름이 있었기 때문. 첫 작품임에도 특심있게  
격정 미스터리 멜로를 밀고 나간 제인 작가의  
필력이 강 작가의 기획력과 만나면서 '미스티'  
는 '장안의 화제작'이 됐다. 또한 모안일 PD의  
모던한 연출이 대본의 장점을 한껏 살렸다.

◇ '아줌마' 티 벗어던지고 화려한 액터로 완  
벽 변신한 김남주

대본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공 고해란이 미  
스 캐스팅이었다면 이 드라마는 자칫 산으로 갈  
수도 있었다. 외모는 물론이고, 기자로서, 앵커  
로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며 "절대 지지 않는  
다"는 신념으로 직진하는 고해란이라는 인물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시청자가 지금처럼  
이 드라마에 열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남주가 그것을 해냈다. 6년 만의 연기였음  
에도 그는 하나부터 열까지 고해란을 속속들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남녀 시청자를 모두 사  
로잡았다.

"내조의 여왕" "역전의 여왕" "남몰래 굴러온  
당신" 등 최근작들에서 코믹한 주부 역을 잇따  
라 맡아왔던 김남주가 화려하고 강렬하며 꺾이  
지 않는 기질의 기자 출신 액터로 '둔갑'한 것이

'미스티'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47세의 김남주가 여신 같은 외모로 등장하자  
시중에서 다이어트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남주 신드롬'이 일어났다. 또  
한 미모는 기본, 그가 보여준 연기는 시비 불을  
지점 하나 없이 무결점이었다.

지진희 역시 고해란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강  
태욱을 매력적으로 소화해내며 여심에 불을 붙  
였다. 사랑의 순정과 집착을 양손에 쥔 강태욱  
을 지진희는 어색하지 않게 넘나들며 시청자가  
그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었다.

◇ 범인에 대한 궁금증 끝까지 이어가는 데 성  
공

'미스티'는 범인에 대한 궁금증을 끝까지 이  
여가는 데 성공했다.

시청자들은 극중 모든 인물을 범인으로 의심  
해 감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고해란(김남주 분),  
서은주(전혜진), 하명우(임태경), 한지원(진기  
주), 장규석(이경영), 광기준(구자성) 등은 물론  
이고, 우스갯소리로 김남주의 남편 김승우가 범  
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열띤 댓글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와중에 지진희가 맡은 강  
태욱만은 아닐까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다. "강태욱이 범인이면 너무 뻔하다"는 추정  
도 있지만, "강태욱이 범인이면 테러가 날 것"  
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아내 고해란에게 "울인"  
한 강태욱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가 높다.

분명한 것은 '미스티'가 이런 감론을박을 동  
력삼아 시청률 10%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다. 누가 범인이 되도 이상하지 않게 대본이 탄  
탄하게 구성된 덕분이다. /연합뉴스

아이유, 5000만원 기부  
서울시농아인협회 전달

어려운 분들께  
도움되고 싶었어요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5·사진)가 농아 어르  
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농아인협회에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협회(이하 서울시농  
아인협회)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16일 협회 산하  
서울시농아노인지원센터에서 써 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농아인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이유  
씨가 본명인 이지은으로 기부금을 보내왔다"며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찾아보다가  
농아노인지원센터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아인협회는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에게 사회적 자립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견과 인  
식 개선을 위해 수화 보급 등을 하는 단체다.  
아이유가 이 협회의 농아노인지원센터에 지점 기  
부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행은 아이유가 21일 첫  
방송하는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여주인공  
으로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유는 이 드라마에서 여섯 살에 병든 할머니  
(손숙 분)와 단둘이 남겨져 파란한 삶을 사는 20대  
이지만 역을 맡았다. 극중 할머니가 농아로 설정돼  
수화를 배운 그는 청각과 언어장애로 어려움을 겪  
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유는 그간 공연과 팬미팅 수익금 전액을 기  
부하거나, 팬들과 함께 결사활동을 후원하고 다른

화가정을 돕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선  
행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모교인 동덕여고 신문에 '후배들을  
위한 아이유 장학금'이란 기사가 나오면서 기부 사실  
이 알려지기도 했다. 아이유는 또 2015년 어린이날  
을 앞두고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해 써 달라며 초  
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추자현-위샤오광 부부

## SBS '동상이몽2' 하차

한중 배우 부부인 추자현(39·왼쪽)-위샤오광(于  
曉光·37)이 SBS TV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명'에서 8개월 만에 하차한다.

지난 19일 '동상이몽2' 방송 말미 다음 주 예고편  
에서는 추자현과 위샤오광의 마지막 이야기가 소  
개됐다. 추자현은 아쉬움에 눈물을 보였고, 위샤오  
광은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추자현은 현재 임신 7  
개월에 접어들어 두 사람은 '동상이몽2' 하차 후 출  
산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추자현과 위샤오광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동상  
이몽2'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다정다감



한 위샤오광은 '우블리'로 불리며 '결혼 조하(종  
아)' 등 유행어를 남겼고, 추자현 역시 국내에서 전  
성기를 누렸다.

두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볼 수 있는 특별판은  
오는 26일 밤 11시 10분에 방송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역주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아시아의 전통시장 스페셜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위대한 유혹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공사청립특집 내 아이를 부탁해 2부작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추리의 여왕 시즌2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00 12 MBC 뉴스 20 좌중우를 만나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2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50 민방워터리온특집 전국 화재 대피 훈련	00 속보이든 TV 인사이트 (재)	15 2018 지구촌어린이들이 희망더하기	55 닥터 365
2	20 한국인의 방상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25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55 UHD 판다당	00 뉴스브리핑
3	10 이웃집 찰스 (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라디오스타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뉴스콘서트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KBS광주 개국 76년 특별생방송 천년의 빛, 천년의 약속	00 스톤에이지 15 영동발달공순이와 친구들 4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령전문료 남도에 살아리랏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헬스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의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 9 50 시사토론회 '10'			
10	45 숏터 5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리턴
11	30 UHD 이미지 다큐 10부작 음악의 정원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정도현 2부작 전라별전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재)	10 스포츠 하이리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눈행복	20 고령전문료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커피의 트렌드를 선도한다, 미국 시애틀)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요술강아지 크레핑 09:00 똑딱맨 09:15 엄마 개구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앵버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주꾸미 삼겹살볶음과 주꾸미 시금치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을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e 12:45 EBS 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재) 14:30 너티너츠 15:00 호기심 소녀 노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요술강아지 크레핑(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2(재) 17:15 엄마 개구리(재) 17:30 두다다쿵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아베타 20:40 세계테마기행 (상상보다 멋진 타기 3부 신화의 땅 토로스) 21:30 한국기행 (남쪽으로 뛰어 3부 기다렸다, 봄맞이) 21:50 EBS 다큐프라임 (생명의 해류 2000km 한반도 해류의 비밀) 22:45 극한직업 (봄철 보양식을 찾아라, 봄장어와 복령 외) 23:55 미래강연 Q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1일(음 2월 5일 壬子)
<b>子</b> 48년생 절실한 시기에 귀인의 도움이 따르리라. 60년생 본능적인 발상을 자제해야만 원만하게 보존할 수 있느니라. 72년생 술 취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84년생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1, 38	<b>午</b> 42년생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54년생 감정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 66년생 경험자의 조언을 참고하자. 78년생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90년생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36, 63
<b>丑</b> 49년생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니라. 61년생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의 말을 빼집듯이 경청하자. 73년생 예상 밖이어서 대단히 실망하는 판도이다. 85년생 핵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끝들다 하루가 다 간다. 행운의 숫자 : 85, 04	<b>未</b> 43년생 갈등이 심화될 것이니라. 55년생 간발의 차가 장래의 향방을 좌우한다. 67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가능성 열고 살펴봐라. 79년생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1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행운의 숫자 : 71, 02
<b>寅</b> 50년생 세밀한 시각으로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체계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성부의 관건임을 알라. 74년생 상대의 표정과 언행은 자신의 거울이니라. 86년생 점점 쌓이고 깊어지면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54, 42	<b>申</b> 44년생 절제하는 마음 자세가 생활화되었을 때에만 건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56년생 선의를 약용하려는 이가 보인다. 68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적기에 쓸 수 있다. 80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수다. 행운의 숫자 : 51, 07
<b>卯</b> 51년생 쉽게 결론 내려질 수도 있다. 63년생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라. 75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너무나 공허하겠다. 87년생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75, 82	<b>酉</b> 45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될 것이다. 57년생 이번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69년생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를 감안하고 처리만 잘 한다면 결실로 이어진다. 81년생 실행하기에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행운의 숫자 : 60, 45
<b>辰</b> 52년생 현재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64년생 성공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나. 76년생 전체 중에서 반박되는 부분이 상정하는 의미는 크다. 88년생 균열을 때면 다면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80	<b>戌</b> 46년생 대중 건너질다가는 착오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날날이 살펴보고 대응할 일이다. 58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70년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보이니 망심하지 않는 것이 좋다. 82년생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자. 행운의 숫자 : 40, 11
<b>巳</b> 53년생 사소한 원인도 차치하지 말라. 65년생 예상대로라면 순기능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77년생 돈이 들어오더라도 갈 곳이 바로 생긴다. 89년생 예상치 못한 기벌이 있을 수 있으니 각오하고 있어야 놀라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22	<b>亥</b> 47년생 현재일우의 기회와 접촉하는 판국이 확연하다. 59년생 정해진 수순대로만 행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겠다. 71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이니 최선을 다 하라. 83년생 노력을 위한 투자가 봐도 된다. 행운의 숫자 : 81, 3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